

# 브라질

##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

2014. 11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6
IV. 국제신인도 .....	8
V. 종합의견 .....	10

## I. 일반개황

면적	8,515천 km <sup>2</sup>	G D P	22,460억 달러 (2013년)
인구	203백만 명 (2014년)	1 인 당 GDP	11,173달러 (2013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Real (R)
대외정책	실리주의	환율(달러당)	2.16 (2013년)

- 브라질은 중남미 전체 GDP 36.6%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며, 농업 5.5%, 제조업 26.4%, 서비스업 68.1%로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음.
- 2억 명(2013년)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높아 인구구조상 향후 지속적인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예상됨.
- 커피, 대두, 설탕, 밀 등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한 세계적인 식량 수출국이며, 보크사이트, 금을 비롯한 광물자원과 석유자원 매장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음.
- 남미공동시장(MERCOSUR), BRICS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,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(UNSC) 상임이사국 등록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분	2010	2011	2012	2013	2014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7.5	2.7	1.0	2.5	0.3
재정수지 / GDP	-2.8	-2.6	-2.8	-3.3	-3.9
소비자물가상승률	5.0	6.6	5.4	6.2	6.3

자료: IMF.

#### □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위축 지속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 0.3%로 둔화

- 브라질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신흥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,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및 산업경쟁력 악화 등으로 201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해 2012년 1.0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.
- 2013년에는 월드컵,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비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이하 수준인 2.5%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대외불확실성 확대, 브라질의 국제신인도 저하 등으로 투자 위축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은 0.3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

- 브라질은 각종 면세제도 실시,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,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.8%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일부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(PIS/cofins) 및 공산품세(IPI) 인하, 2014년 개최 예정인 대선, 월드컵에 대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.3%로 확대됨.
- 2014년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부의 내수진작정책 실시,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축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.9%까지 확대될 전망이다.

□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4년 6%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

- 브라질은 비교적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으며, 2012년에는 내수부진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둔화된 5.4%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, 기후 조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2%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,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3%로 증가할 전망이다.
- 브라질 중앙은행(BCB)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11.25%임.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, 낮은 투자율 등으로 경쟁력 저하

- 2013년 브라질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 5.5%, 제조업 26.4%, 서비스업 68.1%로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.
- 그러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8.1%(중남미 평균 20.4%)에 불과하며, 인프라 수준도 열악하여 제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### 나. 성장 잠재력

□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보유

- 브라질의 GDP 규모는 2013년 기준 세계 7위, 중남미 1위(중남미 전체 GDP의 36.6% 점유)이며,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58.9%로 거대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.
- 약 2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각각 61.8%, 33.3%인 반면,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.9%에 불과하여 인구구조상 향후 지속적인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됨.

□ 농작물, 광물, 석유 등 자원 풍부국

- 커피(세계 1위), 대두(세계 1위), 설탕(세계 3위), 밀(세계 3위), 면화(세계 6위), 쌀(세계 10위) 등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하여 세계 주요 식량수출국임.
- 보크사이트, 금, 철광석, 망간, 니켈 등 30종에 이르는 광물자원과 함께 석유 등 에너지자원 매장량도 풍부함.
  - 2014년 BP(British Petroleum)의 세계에너지통계에 따르면 2013년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156억 배럴로, 중남미 국가 중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 규모임.

다. 정책성과

□ 관료주의 및 정부부패는 기업에 추가적 비용 초래

-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, 과중한 세금부담, 경직적 노동법 등의 관료주의는 기업 영업활동에 경제적 부담("Brazil cost")으로 작용함.
  - 2015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평가(Doing Business)에서 브라질은 조사대상 189개국 중 120위로 콜롬비아(34위), 멕시코(39위), 칠레(41위) 등 주요 중남미 국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함. 특히, 사업개시(167위), 건설허가 취득(174위), 세금납부(177위)의 경우 최하위권임.
    - \* 경쟁국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경우 90위

□ 경기부양책 확대에도 효과는 미미

- 저성장 기조 지속에 대한 우려로 2012년 장기금리 지표인 브라질개발은행(BNDES)의 대출금리(TJLP) 인하(5.5%→5.0%), 건설부문 급여세(Payroll Tax) 인하, 2013년 전력요금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함.
- 2014년 6월에는 제조업 수출에 대해 0.1%~3.0%의 세액공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제공하고 자본재 구입 및 수출, R&D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우대금리 제공 혜택을 201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.
- 그러나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, 2014년 1,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정책효과가 미미한 실정임.

### 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<sup>†</sup>
경 상 수 지	-47,273	-52,473	-54,249	-81,075	-79,633
경 상 수 지 / GDP	-2.2	-2.1	-2.4	-3.6	-3.5
상 품 수 지	20,147	29,793	19,395	2,402	779
수 출	201,915	256,040	242,578	242,034	242,719
수 입	181,769	226,247	223,184	239,631	241,939
외 환 보 유 액	287,056	350,356	369,566	356,214	371,214
총 외 채 잔 액	460,000	522,000	575,800	650,000	728,000
총 외 채 잔 액 / GDP	21.5	21.1	25.6	28.9	32.8
D S R	24.8	22.0	22.5	17.7	18.0

자료: IMF, IIF, OECD.

#### □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상품수지 흑자 대폭 축소

- 철광석, 대두, 커피 등 1차 상품 수출비중이 높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호조에 힘입어 2012년 상품수지 흑자는 194억 달러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커피생산 감소, 인프라 투자를 위한 원자재 수입 확대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24억 달러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, 중국, 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7.8억 달러로 감소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.

#### □ 월드컵 개최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소폭 감소

- 상품수지 흑자에도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2008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, 2012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.4%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,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자, 배당금 지급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.6%를 기록함.

- 2014년에는 월드컵 개최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축소(472억 달러→439억 달러)될 것으로 예상되나, 상품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.5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외국인투자유입 지속으로 풍부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

- 2013년 기준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3,562억 달러로 세계 7위 규모이며, 월평균수입액의 11.4개월에 해당함.
- 2014년에는 저성장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외환보유액은 3,712억 달러(월평균수입액의 11.8개월)로 확대될 전망이다.

\* FDI 유입액 추이: 667억 달러(2011년)→ 653억 달러(2012년)→ 640억 달러(2013년)

### Ⅲ. 정치·사회 동향

#### 1. 정치안정

□ 호세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였으나, 반정부 시위 등 정치적 불안정 요소 상존

- 2014년 10월 대선에서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(PT) 소속 지우마 호세프(Dilma Rousseff)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함.
  - 동월 치뤄진 총선에서 하원 513석 중 노동당이 70석, 제1야당인 민주운동당(PMDB)이 66석으로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으며, 정당구성도 22개 당에서 28개 당으로 증가하여 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관련 여당의 불법 뇌물수수 의혹, 대선 2차 결선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 등으로 대선 이후 상파울로 등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.

#### 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소득불평등, 빈곤 등은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
- 브라질은 소득 상위 10%가 국부의 41.7%(2012년)를 보유하고 있으며, 지니계수도 52.7(2012년)로 집계되어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은 편에 속함.

-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등으로 일소득 2달러 이하 인구 비중은 2011년 8.2%, 2012년 6.8%로 감소추세이나 소득불평등과 함께 빈곤은 강력범죄, 대규모 시위 등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세계경제포럼의 2014-15년 세계경쟁력지수(Global Competitive Index)에서 브라질은 144개국 중 범죄, 폭력으로 인한 사업손실 124위, 조직범죄 119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함.

### 3. 국제관계

#### □ 남미공동시장을 중심으로 개방확대 추진

-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창설국으로, 회원국들과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대외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, 남미공동시장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음.
- 개별 FTA 체결국은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, 이집트 등 3개국에 불과함.
- 브라질은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Mercosur와 EU, 2014년에는 태평양동맹과의 FTA를 추진 중임.

#### □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 확정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추진

- 2013년 전 CIA 요원 스노든에 의해 미국 국가안보국(NSA)의 브라질 내 비밀정보 수집활동이 밝혀지면서 양국간 관계가 급격히 냉각됨.
- 브라질은 미국의 공식해명을 요구하며, 2013년 10월 미국 국민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음.
- 그러나 2014년 호세프 대통령은 재선이 확정된 이후 경제진작의 일환으로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동년 12월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중과세방지 협정, 비자면제협정 등을 논의할 예정임.

#### □ BRICS 국가들과의 정치적, 경제적 협력 강화

- 브라질은 중국, 러시아, 인도, 중국, 남아공과 함께 BRICS 회원국으로 정상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정치적,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고 있음.
- 특히, 중국의 경우 브라질의 최대 교역대상국(총수출의 17.0%, 총수입의 15.3%)인 동시에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함.
- 2014년 7월 개최된 제6차 BRICS 정상회의에서는 신개발은행(NDB) 설립, 위기대응기금(CRA) 설치 등에 대해 합의함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환태도

□ 낮은 연체비율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

- 브라질은 외채위기로 6차례(1961, 1964, 1983, 1987, 1988, 1992년) 파리 클럽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하였으나, 2005년 12월 IMF 차관 및 파리클럽 채무 잔액을 조기상환하면서 대외신인도가 제고됨.
- 2008년 2월에는 외환보유액이 외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됨.
-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8.4%이며,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16.7%로 외채구조가 양호함.
- 한편, 2014년 6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325억 달러 (단기 73억 달러, 중장기 252억 달러) 중 연체액은 1.5억 달러로 0.5%에 불과함.

### 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3등급 (2014. 10.)	3등급 (2013. 10.)
S&P	BBB- (2014. 3.)	BBB (2013. 6.)
Moody's	Baa2 (2014. 9.)	Baa2 (2013. 10.)
Fitch	BBB (2014. 7.)	BBB (2013. 7.)

- 2014년 10월 OECD는 브라질의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, 거대 내수시장 보유 등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3등급으로 유지함.
- 2014년 3월 S&P는 낮은 투자율, 대외경기변동으로 브라질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, 이에 대응할 정부의 재정여력 부족 등을 근거로 동국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-로 하향조정함.
- 2014년 9월 Moody's도 동국의 등급전망을 “안정적”에서 “부정적”으로 하향조정함.

□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: 최고부보율 적용
- 영국 ECGD: 단기인수가능, 중기인수는 제한적 인수
- 독일 Hermes: 단기전액인수 가능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59년 10월 31일 (북한과는 2001년 3월 9일 수교)

□ 주요협정 : 무역협정(1963), 문화협정(1967), 이중과세방지협정(1991), 과학 기술협력협정(1992), 투자보장협정(1995), 사증면제협정(2001), 원자력협력협정(2005), 국방협력협정(2006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4> 한 · 브라질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1	2012	2013	주요품목
수 출	11,821	10,286	9,688	자동차부품,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
수 입	6,343	6,085	5,573	철광, 식물성물질, 곡실류
교역규모	18,164	16,371	15,261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2013년 기준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국가임.
- 대브라질 교역규모는 2012년 164억 달러, 2013년 153억 달러로 감소추세이며 특히, 2011년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자동차(2013년 5위 수출품목)의 경우 동 기간 수출규모가 각각 52%, 46% 감소함.
- 2014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해외직접투자는 253건, 58억 달러(투자누계 기준)를 기록함.
  - 투자업종으로는 제조업(52.7%), 광업(29.3%), 금융 및 보험업(10.0%)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.

## V. 종합의견

- 2014년 대외불확실성 확대, 브라질의 국제신인도 저하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0.3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.
- 월드컵 개최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에도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 둔화,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2014년 10월말 대선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나, 여당의 에너지공기업 PETROBRAS와 관련한 불법 뇌물 수수 의혹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움.
-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외채비중, 양호한 외채구조,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김지용(☎02-6255-5716)

E-mail: jyk@koreaexim.go.kr